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어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어원(語源)에 대한 관심에서 짜른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김대문(金大問)의 어원 연구가 국어사 연구의 첫 업적이었다. ‘차차옹(次次雄)’, ‘이사금’, ‘마립간(麻立干)’ 등에 대한 그의 어원 해석이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인용되어 있음을 본다. 그 뒤에도 어원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러나 전통적인 어원 연구는, ⑦몇몇 예외가 없지는 않았지만, 대개 어원지 않은 한자(漢字)의 지식에 기댄 것이었다.

(나) 한자와의 밀착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방법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어원 연구를 개척한 학자는 권덕규였다. 지난 1920년대에 그가 논한 단어는 모두 합해야 여남은에 불과 하지만, 중세어(中世語)와 고대어(古代語)의 연구에서 '시내'를 '실'과 '내'의 복합어로 보고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인명 표기와 지명 표기의 예를 들어 ① '실'이 골짜기를 뜻한 고대어 단어라고 한 것은 탁견(卓見)이었다. 그 뒤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속지명에 '밤실 [栗谷]' , '돌실 [石谷]' 등이 ② 경성드물하게 흩어져 있음이 확인되어 으로써 '실(谷)'의 존재가 확증되었다.

(다) 이렇게 새로이 시작된 어원 연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었지만, ⑤ 아직 확고한 터전을 닦았다고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원 연구는 음운, 문법, 어휘, 의미 등 여러 분야의 역사적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에 비로소 믿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원 연구는 하나하나의 단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체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느 한 단어의 내력을 밝히고 그 근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국어의 역사를 비추는 크고 작은 조명들이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출 때에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라) 한 예로 '하루'를 들어 본다. 중세어에서 이 단어는 휴지(休止) 또는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 앞에서는 '흐르'로,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앞에서는 '흘리, 흘를'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④학자들은 이보다 이른 시기에 이 명사가 단일형(單一形)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하고, 그것을 재구(再構)한다. 여기서는 '흐를'을 재구하게 된다. 이 재구는 다행히도 제주도 방언의 지지를 받는다. 제주도의 늙은이들은 지금도 '흐를'이란 단일형을 유지하고 있다.

(마) 탐색이 이에서 그친다면, 모처럼 '흐를'을 재구한 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 '흐를'을 토대로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을까? 먼저, 이 단어를 둘러싼 어휘 체계에 눈을 돌리면, 중세어 문헌에서 '이틀, 사울, 나울, 다쎄, 여쎄, 널웨, 여드래, 아흐래, 열흘'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수사(數詞)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틀'의 '일'은 좀 특이하지만 '일흔'에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사울, 나울'의 '사, 나'는 '서, 너'가 모음의 변화를 입은 것이요, ㊂나머지는 '다소, 여수, 널굽, 여덟~여덟, 아홉, 열'과의 관련이 쉽게 인정된다. 그리고 '이틀, 사울, 나울, 열흘' 등도 '흐를'과 같이 '을 ~을'을 가지고 있음을 본다.

27. 각 단락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전통적 어원 연구의 역사
 - ② (나) : 과학적 어원 연구의 개척
 - ③ (다) : 어원 연구의 기초적 조건
 - ④ (라) : 어원 연구의 구체적 사례
 - ⑤ (마) : 어원 연구의 실제적 의의

28. (가)의 뒷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개(犬)'는 '가이'에서 왔다.
 - ② '우례'는 '우뢰(雨雷)'로 표기해야 한다.
 - ③ 잘못 표기된 '이사'는 '의사(醫師)'로 바꾸어야 한다.
 - ④ 방언의 '사이'는 '새(鳥)'로 교정해야 한다.
 - ⑤ '밝은 달'은 '명월(明月)'로 표현하는 것이 풀위 있다.

29. ㉠~㉢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전통적인 어원 연구에서도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다.
 - ② ㉡ : 권덕규는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어를 재구하였다.
 - ③ ㉢ : 역사적 연구의 성과들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 ④ ㉣ : 국어의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고대에 단일형이었다.
 - ⑤ ㉤ : 어원적으로 보면 수사는 날짜 명사에서 유래되었다.

30. ①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개재(介在)
 - ② 산재(散在)
 - ③ 실재(實在)
 - ④ 잠재(潛在)
 - ⑤ 편재(偏在)

31. (라)에서 ‘하루’의 어원을 재구하는 과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1.2점]

- ① 경호는 부둣가에서 상어의 배를 가르는 장면을 보았다. 상어의 배 속에는 고등어가 있었다. 그 고등어의 배 속에서는 새우가 나왔다.
⇒ 고등어가 새우를 잡아 먹은 다음, 상어에게 잡아 먹혔다.

② 순희는 연못에서 올챙이를 잡은 후, 어항 속에 넣었다. 며칠 후, 순희는 어항 속에서 개구리를 발견하였다.
⇒ 올챙이는 얼마간 자란 다음, 개구리로 변한다.

③ 영희는 자기 집 비둘기의 발목에 고리를 끼운 후, 바깥으로 날렸다. 며칠 후 발목에 고리가 있는 비둘기가 영희의 집으로 날아왔다.
⇒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는 새이다.

④ 철수는 며칠 전 개구리가 심하게 울더니 곧 비가 오는 것을 보았다. 오늘 밤에는 개구리가 시끄럽게 운다.
⇒ 곧 비가 올 것이다.

⑤ 민철은 자기의 개에게 야구공의 냄새를 맡게 한 후, 공을 방망이로 힘껏 쳐서 멀리 날려 보냈다. 잠시 후, 개는 그 공을 입에 물고 민철에게 돌아왔다.
⇒ 개는 후각이 대단히 발달하였다.

- 척답: 27.⑤ 28.② 29.⑤ 30.② 31.①

◆ 05 수능(예비) 34~37번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한자의 음을 우리말 단어의 발음 기호로 활용하는 것으로, '길동'이라는 지명을 적기 위하여 '吉'[길]과 '同'[동]을 끌어와 '吉同'으로 적고 [길동]으로 읽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한자의 음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음차 표기'라 한다. 다른 하나는 한자의 뜻, 다시 말해서 훈(訓)을 빌려와 우리말의 음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栗'(밤 율)의 훈으로 [밤]을 나타내고, '峴'(고개 현)의 훈으로 [고개]를 나타내어, '栗峴'으로써 우리말의 [밤고개]를 표기하는 것이다. '栗峴'을 [율현]이라 읽지 않고 [밤고개]로 읽는 이 방법은 한자의 뜻, 즉 훈(訓)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훈차 표기'라 한다.

이러한 단어 중심의 한자 차용 표기는 점차 두 단계에 걸쳐 문장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문장 표기의 1단계는 '我愛汝'([아애여], 나 사랑 너)와 같이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중국어식 어순을, '我汝愛'([나 너 사랑)와 같이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는 단계였다. 1단계는 점차 명사와 용언 어간에 각각 조사와 어미를 첨가하는 2단계로 이어졌다. 2단계에 속하는 향가 표기, 즉 향찰은 '我愛汝'에 조사나 어미를 붙여 '我隱汝乙愛爲隱如'([아은 여을 애워 은여], 나는 너를 사랑하느다)와 같이 상당히 체계화된 문장 표기 모습을 보여준다. 향찰에서는 어절을 단위로 하여 대체로 뜻이 중요한 명사나 용언 어간은 '훈차'를 하고, 문법적 기능이 중요한 조사나 어미는 '음차'를 함으로써, 한 어절의 표기가 '훈차+음차'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의 역사는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를 오늘날까지 계승하여 문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새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자 차용 표기를 알고 있던 세종대왕은 왜 일본과 달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어와 우리말이 갖는 음절의 특징에 주목하여 그 이유를 찾는다. 일본어는 음절이 간단하여 한자로 표기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수도 50개 정도면 충분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말은 [곳], [닫]과 같이 한자로 나타낼 수 없는 음절이 많았을 뿐 아니라 그 수도 2,000개 이상이 필요하였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보인다.

34.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훈차에서 한자 한 글자는 우리말 음절 하나와 대응되었다.
- ② '愛爲隱如'(사랑하느다)의 '爲'(할 위)는 훈차 표기 방법을 따랐다.
- ③ [곳], [닫]과 같은 음절은 한자 한 글자로 음차 표기할 수가 없었다.
- ④ '坪村'을 [평촌]으로 읽으면 음차가 되고, [별말](별마을)로 읽으면 훈차가 된다.

⑤ 한자 차용 표기는 '단어 표기 → 문장의 어순 조정 → 조사와 어미의 첨가' 순서로 전개되었다.

35.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향찰에서 보조 성분의 어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 ② 한자 차용 표기가 고려 시대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아서
- ③ 한자로는 조사나 어미의 문법적 기능을 잘 드러낼 수 없어서
- ④ 한자 차용 표기로는 우리말의 소리를 충분히 표기할 수 없어서
- ⑤ 한자 차용 표기에서 음차는 문제가 없었지만, 훈차는 문제가 많아서

36. <보기>의 설명 중, 위 글로 미루어 타당한 것끼리 묶인 것은?

- <보기>—
- ㄱ. 고대에 우리말과 중국어의 발음을 달랐으나 어순은 비슷했다.
 - ㄴ. 어떤 언어 공동체의 문자와 표기는 그 공동체의 언어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 ㄷ. 한자 차용 표기에서 '훈차+음차' 표기의 단위는 현대 국어 맞춤법의 띄어쓰기 단위와 관련이 깊다.
 - ㄹ. 현대 일본의 문자와 표기는 그들의 한자 차용 표기를 계승한 것으로 향찰과는 공통점을 거의 찾을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7. <보기>의 우리말을 영어와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활용하여 향찰과 같은 방식으로 적어서 읽는다고 할 때, 쓰기와 읽기의 방법이 올바른 것은?

—<보기>—

[나는 너를 사랑한다]

* 국어 로마자 표기법

ㄴ	ㄷ	ㄹ	ㅂ	ㅅ	ㅇ	ㅎ	ㅏ	ㅓ	ㅜ	ㅡ	ㅣ
n	d	r, l	b	s	ng	h	a	eo	yu	eu	i

- <쓰기>—————<읽기>
- ① I-neun YOU-reul LOVE-hand. [na-neun neo-reul sarang-hand]
 - ② na-neun neo-reul sarang-hand. [I-neun YOU-reul LOVE-hand]
 - ③ I-neun LOVE-hand YOU-reul. [I-neun LOVE-hand YOU-reul]
 - ④ ai-neun yu-reul reobeu-hand. [na-neun neo-reul sarang-hand]
 - ⑤ I-neun YOU-reul LOVE-hand. [ai-neun yu-reul reobeu-hand]

◆ 03 모평 33~36번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 어휘의 변화

음운이나 문법과는 달리 어휘에는 그 시대의 다양한 특징적 상황들이 반영된다. 따라서, 우리말의 어휘가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변화 양상까지도 읽을 수가 있다.

고대 국어의 어휘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이 시기의 우리말 어휘는 외래 요소에 의한 오염이 없이 순수한 고유어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 시대에 들어와 중국과의 교섭이 잦아지면서 수많은 한자어들이 들어와 우리말의 어휘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된 이중적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신라 경덕왕(景德王) 16년(서기 757년)에 원래 고유어였던 땅 이름, 사람 이름, 관직 이름 등이 대부분 한자어로 바뀌게 된 것도 한자어의 세력이 강해진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고유어가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중세 국어의 문헌들에는 ‘온[百]’, ‘즈른[千]’, ‘笮[江]’과 같이 현대 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많은 고유어들이 발견된다. 이들은 뒤에 대부분이 한자어로 대체되었다.

또, 외래어의 도입도 끊임없이 이어져서 그 결과 고유어는 수적으로 점점 위축되어 왔다. ‘분[筆]’, ‘먹[墨]’ 등의 단어는 중국어를 직접 차용한 것이며, ‘부텨[佛陀]’, ‘미륵[彌勒]’ 같은 불교 용어는 범어(梵語)가 한자어를 통해서 우리말에 들어온 것이다. 고려 말기에는 관직, 군사에 관한 어휘를 비롯하여, 말과 배, 그리고 음식에 관한 단어들이 뭉골어에서 들어왔다. ‘가라말[黑馬]’, ‘보라매[秋鷹]’, ‘수라[御飯]’ 등이 그 예이다.

갑오개혁으로 대표되는 개화기를 전후하여 우리말의 어휘에는 다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자를 사용하여 번역된 서구의 신문명어들이 대량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공기’, ‘전기’, ‘이발’, ‘대학교’, ‘권리’, ‘석유’, ‘철로’, ‘병원’,…… 등과 같은 단어들은 모두 이 시기에 들어온 것이다. 또, 일제 강점기에는 많은 일본어들이 우리말에 들어왔으나 광복 뒤 꾸준한 ④ [정리] 작업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광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명과 직접 관계를 맺는 일이 잦아지면서 서구 외래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은 현대 국어 어휘의 커다란 특징이다.

단어의 의미도 역시 변화하였다. 어휘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의미 영역이 확장되기도 하고 반대로 축소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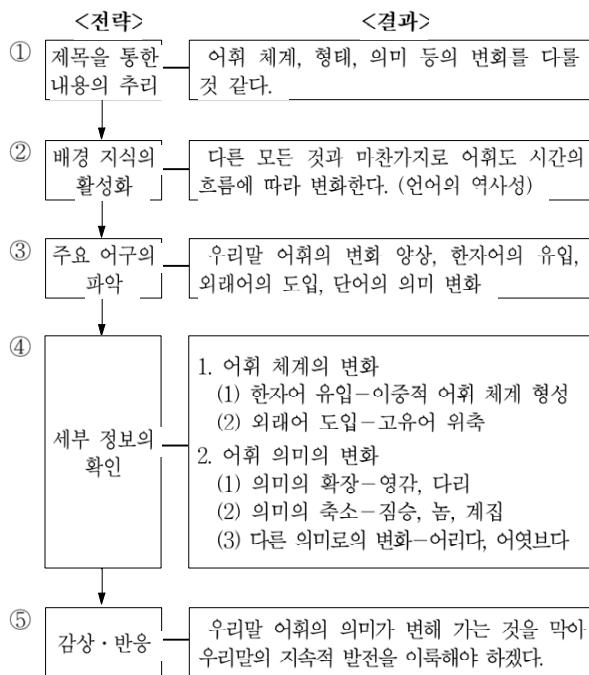
의미가 적용되는 영역이 원래보다 확장된 예는 많이 있다. ‘영감(衿監)’은 옛날에는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벼슬을 한 지체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남자 노인을 둘루 가리키게 되었다. ‘다리[脚]’도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에서 무생물의 다리로까지 의미 영역이 확장된 말이다.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의미가 적용되는 영역이 원래보다 축소된 경우도 있다. ‘짐승’은 원래 한자어인 ‘중생(衆生)’에서 온 말로, 원래 유정물(有情物) 전체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였지만, 이 말에서 비롯된 ‘짐승’이란 말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만을

가리키게 되어 의미가 축소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놈, 계집' 같은 말이 있다. 이들은 원래 일반적인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던 것인데, 그 의미 영역이 축소되어 지금은 비속어로 사용된다.

한편, 의미의 확대나 축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령, '어리다'는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또, 중세 국어에서 '어엿보다'는 현대 국어처럼 '아름답다'는 뜻이 아닌 '불쌍하다'는 뜻이었다.

33. 한 학생이 웃글을 읽어 나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읽기 전략에 따른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34. <보기>는 사전의 뜻풀이이다. ①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정리(整理)[정: 니] ①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❶ 책상 정리/집안 정리/교통 정리. ②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함. ❷ 서류 정리/카드 정리. ③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음. ❸ 채무 정리/재개발 지역의 택지 정리. ④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아니하고 끝냄. ❹ 관계 정리. ⑤ 은행과의 거래 내역을 통장에 기록으로 나타냄. ❺ 통장 정리.

① ⑦ ② ⑨ ③ ⑩ ④ ⑪ ⑤ ⑫

35. 중세 국어 시대의 인물과 현대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상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다. 단어의 의미 변화를 고려할 때, 대사가 잘못 구성된 것은?

구중세: 어허! 저것들이 다 무엇인가?

신현대: 영감님! 저건 자동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마차 같은 것이지요.

구중세: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런가? 그런 데, 저걸 모는 사람은 계집이 아닌가?

(혀를 차며)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일을 할꼬? 어엿보기도 하여라.

신현대: (흔들며)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낮은 목소리로) 영감님! 계집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여자가 들으면 싫어할 거예요.

구중세: (의아한 표정으로) 뭐라? 그건 그렇고. 이 사람이, 나는 영감이 아닐세. 아무한테나 영감이라고 해서는 안 되네.

신현대: (어리둥절해 하며) 네? 아! 그렇군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 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구중세: 자네가 어리긴 뭘 어린가? 조금 있으면 장가들 나이인데.

36. 웃글에 관한 발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모둠 토의를 하고 있다.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제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숙영: 현대 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고유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② 회숙: 우리가 채팅할 때 쓰는 말 중에서 원래의 의미와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③ 영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서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있는 은어, 비속어는 무엇일까?

④ 인희: '고유어-한자어-서구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는 현대 국어 어휘의 삼중 체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⑤ 철수: 이 글에 제시된 우리말 어휘 변화의 양상을 통해 읽어 낼 수 있는 우리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 양상은 무엇일까?

◆ 07년 10월 고3 45~47번

【45~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세기에 편찬된 최세진의 『훈동자회(訓蒙字會)』는 훈민정음 자음의 명칭을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밝히고,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서 글자의 배열은 첫 소리(초성)와 끝소리(종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여덟 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첫소리에만 쓰일 수 있는 여덟 자(ㅋ, ㅌ, ㅍ, ㅈ, ㅊ, ㆁ, ㆁ, ㆁ), 가운데소리(중성)에만 쓰일 수 있는 열한 자(ㅏ, ㅑ, ㅓ, ㅕ, ㅗ, ㅕ, ㅜ, ㅕ, ㅡ, ㅣ, ㅡ)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뒤로 자음과 모음의 운용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즉 첫소리와 가운데소리를 합해 글자를 만드는 예(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ㅋ)를 보여주고 있고, 첫소리와 가운데소리와 끝소리를 합해 글자를 만드는 예(각, 간, 간, 갈, 갈, 갑, 갓, 강)를 보여준다.

『훈동자회』에서는 자음의 이름을 'ㄱ: 其役(기역), ㄴ: 尼隱(니은), ㄷ: 池末(디귿), ㄹ: 梨乙(리을) ... ㅋ: 箕(키) ... ㅌ: 治(치)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첫째 글자인 '其(기), 尼(니), 池(지→디), 梨(리)'는 첫소리에 사용되는 자음의 용례를 보인 것이고, 둘째 글자인 '役(역), 隱(은), 末(은), 乙(을)'은 끝소리에 사용되는 자음의 용례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자음의 이름은 해당 자음이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쓰이면 두 글자로 하고, 첫소리에만 쓰이면 '箕(키), 治(치)'와 같이 한 글자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소리에는 사용되지만 끝소리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한글 자음의 이름을 '기역, 니은, 디귿...'으로 부르는 것은 『훈동자회』에 나타난 자음의 이름을 한글로 적은 것이다. ① 『훈동자회』가 현대의 자음 명칭과 다른 것이 있다면 '키, 티, 피, 지...' 등이 '키읔, 티읕, 피읖, 지읕...'으로 바뀐 것뿐이다.

그러면 자음은 어떤 원칙에 의해 순서가 정해졌을까? 『훈동자회』에는 특별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는 훈민정음에서 기본자 'ㄱ, ㄴ, ㅁ, ㅂ, ㅅ, ㅇ'에 가획된 것을 해당 기본자 뒤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자에 가획 순서는 훈민정음 해례의 조음 위치에 따른 배열순서와 일치한다. 즉 '어금닛소리(ㄱ), 헛소리(ㄴ), 입술소리(ㅁ), 잇소리(ㅂ), 목구멍소리(ㅅ)'의 순서로 배열된다. 이 중 'ㅇ'은 첫소리에만 사용되므로 가획자인 '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ㄴ→ㄷ→ㄹ(가획과 이체)', 'ㅁ→ㅂ(가획)' 등과 같은 순서로 배열된다. 첫소리에만 쓰이는 여덟 글자의 순서 역시 같은 원리로 정해졌다. '(ㄱ)→ㅋ', '(ㄴ→ㄷ)→ㅌ', '(ㅁ)→ㅍ', '(ㅂ)→ㅈ→ㅊ→ㆁ(가획과 이체)', '(ㅅ)→ㆁ(가획)' 등의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다.

45. 위 글을 바탕으로 ①의 이유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대의 자음과 16세기의 자음이 같았기 때문이다.
- ② 현대로 오면서 새로운 자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③ 16세기의 자음 중, 현대로 오면서 사라진 자음이 있기 때문이다.
- ④ 현대의 표기법에서는 해당 자음이 받침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16세기의 받침 표기 방식과 현대의 받침 표기 방식이 같기 때문이다.

46. <보기>는 <세종어체 훈민정음>의 일부를 현대어로 풀이한 것이다.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는 어금닛소리니 '君(군)'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ㅋ는 어금닛소리니 '快(쾌)'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ㆁ는 어금닛소리니 '業(업)'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ㄷ는 헛소리니 '斗(두)'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ㅌ는 헛소리니 '頓(탄)'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ㄴ는 헛소리니 '那(나)'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 ① 『훈동자회』도 <보기>처럼 한자(漢字)를 이용하여 한글의 자음을 설명하고 있군.
- ② 『훈동자회』와 <보기>는 훈민정음 해례의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배열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보기>는 한글 자음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지만, 『훈동자회』는 자음의 소리를 설명하고 있군.
- ④ <보기>보다 『훈동자회』의 자음 배열순서가 오늘날의 자음 배열순서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보기>와 달리 『훈동자회』는 첫소리에서만 사용되는 자음과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사용되는 자음을 구분하여 배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47. 위 글과 <보기>의 신문 기사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최근 중국에 있는 교포가 중국어를 한글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한자(漢字)는 컴퓨터와는 어울리지 않는 문자입니다. 수만 자가 넘는 한자를 컴퓨터 자판에 다 옮겨놓을 수 없잖아요. 글자를 한글처럼 분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글로 중국어 발음만 입력하면 한자로 변환되도록 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예로 등소평의 중국 발음인 '덩샤오핑'을 한글 자판으로 입력하면 화면에 '등소평(鄧小平)'이라는 한자가 나타나는 것을 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한글 입력 방식은 세벌식이다. 자판 배열이 첫소리는 왼쪽에, 모음은 오른쪽에, 받침은 아래쪽에 했다. '박'이라고 하면 'ㅂ ㅏ ㄱ' 등 세 자판을 동시에 누르는 것이다. 피아노 건반을 동시에 누르는 것과 비슷하다.

"중국 단둥시(市)에서는 직업학교에서 그의 입력 방식을 쓰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일본의 한 업체는 저작권을 팔라는 제안도 했다."고 그는 말했다.

- ① 적은 수의 문자로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의 효율성을 알려주는 사례로군.
- ② 한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하는 발음 기호로도 한글을 이용할 수 있겠어.
- ③ 소리를 첫소리와 가운데소리, 끝소리로 분석하여 만든 한글의 과학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로군.
- ④ 이제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漢字)도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처럼 분해해서 표기할 수 있게 되었군.
- ⑤ 현대 국어에서는 끝소리가 첫소리로도 쓰일 수 있으니 자판을 두 가지로 배열한 두벌식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어.

◆ 11-6 평 44~46번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창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자 생활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서적의 간행에 영향을 미쳤는데, 서적을 간행할 때에 서적의 내용과 간행 목적에 따라 예상 독자층을 상정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되었다.

한글 창제 직후 간행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은 모두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하지만 세 문현은 구체적인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상정한 예상 독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용비어천가』는 ‘海東六龍이 누르사’에서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였다. 이것은 한자와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 ‘생세존尊’에서처럼 ①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었고, 『석보상절』은 ‘세생존존’에서처럼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행하여 적었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에는 공통적으로 ②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한자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독자층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구를 주된 독자층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 달랐다. 『월인천강지곡』은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를 통해 새로 확보하게 될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간행된 것이다.

앞의 세 문현보다 후대에 간행된 『두시언해』와 『백련초해』도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방식에 서로 차이를 보인다. 성종 때 간행된 『두시언해』는 두보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한 책인데, ‘東녀그로 萬里에’에서 보듯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시언해』가 두보의 시를 한문으로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련초해』는 원문의 시는 한자로 적고 각 한자에 한글로 음과 훈을 달았으며, 번역문은 순 한글로 적고 있다. 이는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독자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순한글로만 적는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용비어천가』는 한자음을 한글로 밝혀 적는 방식을 채택했다.
- ② 『월인천강지곡』은 한글 창제로 인해 확대될 독자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
- ③ 『석보상절』은 서로 다른 부류의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표기 했다.
- ④ 『두시언해』는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을 고려했다.
- 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글로만 표기되었다.

45.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⑦의 원리를 오늘날에 맞게 적용한 것은?

<보기>

한글과 한자는 음절 단위로 끊어 적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알파벳은 음소 문자라는 점에서는 한글과 같지만 문자를 운용할 때에는 한글과 달리 음절 단위로 끊어 적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글과 알파벳을 함께 사용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 ① London에 살아요.
- ② 런던(London)에 살아요.
- ③ London(런던)에 살아요.
- ④ Lon런don던에 살아요.
- ⑤ 런Lon던don에 살아요.

46. ⑦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보기>의 주장을 도입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에는 [f]에 해당되는 음이 없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영어의 'file'과 같은 단어를 '파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의 발음이 [f]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적인 기호 'o'를 사용하여 '퐁'을 만들어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① 외국어의 다양한 문자를 적기 위해 많은 부가적 기호가 개발된다.
- ② 표기하려는 음이 국어에 없는 음이므로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 ③ 외국어 발음이 부자연스럽게 통일되므로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외국어의 정확한 음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으므로 국어의 문자 생활이 편리해진다.
- ⑤ 영어의 file을 '퐁파일'로 적게 되므로 국어에 새로운 음이 만들어져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진다.

◆ 99 수능 34~39번

[34-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상 만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언어도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의사 전달을 위한 약속의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이 ⑦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변화들이 월새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그 변화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나) 우리말은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우리말의 이러한 변화는 음운, 어휘, 문법 등 국어를 구성하는 모든 측면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다음은 15세기에 쓰여진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서문인데, 이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말에는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다) 나랏말쓰미 中등國국에 달아 文문字중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흘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百姓성이 니르고져 훔 배 이셔도 민총내 제 빤들 시러 펴디 몬홍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윙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를 여들 字중률 빙그 노니 사름마다 희여 수빙 니겨 날로 뿐메 便뻔安한끼 ⑦고져 훔 쌈르미니라

(라) 여기서 ⑦‘백성, 니르다, 뿐’은 오늘날에는 각각 ‘백성, 이르다, 뜻’으로 바뀌었다. 이는 그 동안 음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단어의 모습도 바뀐 것이다. 또, ‘전초’라는 단어는 ‘까닭’으로, ‘하니라’는 ‘많으니라’로 바뀌었는데, 이는 ‘전초, 하니라’ 같은 단어들이 지금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어린 백성’에서 ‘어린’은 당시에는 ‘어리석다’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몬홍 노미’의 ‘늄’도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는 그 동안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예이다.

또, ‘니르고져’의 ‘-고져’는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데 지금은 ‘-고자’로 쓰이며, ‘훔 배 이셔도’에서 의존 명사 ‘바’에 주격 조사 ‘ㅣ’가 붙어 있지만, 지금의 국어에서는 ‘하는 바가 있어도’처럼 주격 조사 ‘가’가 쓰인다. 이는 15세기에서 지금에 이르는 동안 문법에도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예이다. 이처럼 우리말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를 해 왔다.

34. 윗글의 중심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언어 변화의 양상을 알게 되었다.
- ② 언어 기호의 자의성을 인식하였다.
- ③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알게 되었다.
- ④ 표준어 사용의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 ⑤ 한글의 과학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35. (가)의 중심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예는? [2점]

- ① 광복 이후 우리말 되찾기 운동을 펼쳤다.
- ②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었다.
- ③ “차례차례 승차합시다.”를 “차례차례 탑시다.”로 바꾸어 말한다.
- ④ 고속 도로의 옆길을 가리키던 말을 ‘노견’에서 ‘갓길’로 바꾸었다.
- ⑤ ‘계집’은 ‘일반적인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의미가 축소되었다.

36. (다)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1.6점]

- ① 새로 만든 문자는 28자이다.
- ② 당시에도 우리말과 중국어는 달랐다.
- ③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새 문자를 만들었다.
- ④ 새 문자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⑤ 당시에는 문자 생활을 할 수 없던 사람이 많았다.

37. 다음의 ‘마음’ 중, ⑦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 | |
|-------------|------------|
| ① 마음이 좋다. | ② 마음이 내키다. |
| ③ 마음이 상하다. | ④ 마음이 아프다. |
| ⑤ 마음이 가라앉다. | |

38. ⑦의 ‘백성, 니르다, 뿐’에 추가할 수 있는 예를 (다)에서 고르면? [1.6점]

- | | | |
|------|------|------|
| ① 나라 | ② 이런 | ③ 시러 |
| ④ 펴디 | ⑤ 날로 | |

39. 다음 중, 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 ① 나랏말쓰미 中등國국에 달아 ⇒ 文문字중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흘씨
- ② 어린 百百姓성이 니르고져 ⇒ 훔 배 이셔도
- ③ 제 빤들 시러 ⇒ 펴디 몬홍 노미 하니라
- ④ 사름마다 희여 ⇒ 수빙 니겨
- ⑤ 날로 뿐메 便뻔安한끼 ⇒ ⑦고져 훔 쌈르미니라

◆ 09 수능 13~15번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의 문장 부호는 독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적 기호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형태나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옛 문헌에도 오늘날의 문장 부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다. 띠어쓰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옛 문헌에서 이러한 부호들은 더욱 요긴하게 쓰였다.

현대의 마침표나 쉼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 있다. ‘.’은 찍힌 위치에 따라 그 기능이 달랐다. 세로쓰기를 했던 옛 문헌에서 글자의 오른쪽 아래에 찍힌 점은 구점(句點)이라 하는데, 마침표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다. 글자 아래쪽 가운데에 찍힌 점은 두점(讀點)이라 하는데, 쉼표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다. ‘구두점’이란 말은 여기서 유래한다. 단락이 끝나고 공백이 오는 경우와 같이 문장이 끝났음이 명백할 때에는 문장 뒤에 구점이 생략된다. 『훈민정음해례』나 『용비어천가』 등에 이러한 구두점이 사용되었다.

‘○’은 새로운 단위의 내용이 시작될 때 쓰였다. 각각의 예문이나 단락, 조항 등이 시작하는 곳이나 화제가 전환되는 곳에 사용되었다.

주석을 달기 위해서는 ‘【】’가 사용되었다. 단어나 구절의 뜻을 풀이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 안에 그 내용을 넣었다. 오늘날의 ‘()’, ‘[]’와 기능이나 형태가 유사하다. 다만 구점과 마찬가지로 단락이 끝나는 위치에서는 ‘】’가 생략된다.

⑦ ‘〃’, ‘々’, ‘へ’은 앞 글자나 앞 어구와 동일함을 표시해주는 부호인데, 인쇄본보다는 손으로 쓴 필사본에 더 많이 나타난다. 한편 사전류에서는 설명의 대상인 표제어가 용례로 반복되어 나타날 때 ‘—’로 대체하였다. ‘〃’ 등은 바로 앞에 오는 글자나 어구의 반복만 나타낼 수 있는 데 비해, ‘—’는 위치에 상관없이 표제어에 해당하는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부호들은 한문 문화권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사용하여 우리의 문자 생활을 다채롭고 정확하게 하였다. 구점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포함되어, 세로쓰기를 할 때 마침표로 사용된다. ‘○’, ‘〃’은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도 쓰이고 있다.

* 이 글에 쓰인 옛 문헌의 부호들은 가로쓰기에 맞게 방향을 바꿔 채시한 것임.

13. 위 글의 중심 내용은?

- ①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기원
- ②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변화 과정
- ③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종류와 기능
- ④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현대적 수용
- ⑤ 옛 문헌과 현대 문헌의 문장 부호 비교

14. ⑦을 사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 ② 문장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기 위해
- ③ 띠어쓰기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 ④ 쓰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 ⑤ 글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15. <보기>는 현대 어휘 용례 사전의 일부이다. 위 글을 읽고 옛 문헌에 사용된 부호를 적용해 본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오늘

¶ 고량진미도 나물국부터 시작하고, 천 리 길도 문 앞에서
부터 시작하는 법. 나의 오늘 역시 내일의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첫걸음이다. – 이규보(고려 시대의 문인)
¶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 ① 옛 문헌이라면 ⑧의 ‘,’ 대신에 두점을 찍었겠군.
- ② 옛 문헌이라면 ⑨의 ‘.’ 대신에 구점을 찍었겠군.
- ③ 옛 문헌이라면 ⑩의 ‘오늘’ 대신에 ‘—’를 사용했겠군.
- ④ 옛 문헌이라면 ⑪의 ‘—’ 대신에 ‘】’를 사용했겠군.
- ⑤ 옛 문헌이라면 ⑫의 ‘¶’ 대신에 ‘○’을 사용했겠군.

◆ 09-6평 40~42번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몇 해 전 경북 안동의 묘에서 16세기에 쓴 한글 편지가 발견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절절한 애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 시대에 쓴 옛 한글 편지를 ‘언간(諺簡)’이라 한다. 언간은 우리말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당시 언중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 자료이다. 지금까지 많은 언간이 전해지지만 사대부 간에 주고받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사연이나 감정을 드러낸 것이 대부분이었다.

언간의 특징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언간이 당시 자료인 언해(諺解)*에 보이는 문체적 특징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언해 자료는 번역의 속성상 원문인 한문의 간접이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17세기 언해 자료인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그 어미와 및 씩어미로 더브러(與其母及姑)’ 부분을 보면, 우리말 어법에 필요 없는 ‘및’이 더 들어 있다. 또한 ‘밤’을 미쳐 『마니 나기』라고 해야 할 것을 ‘및 밤’을 미쳐 『마니 나기(及夜間潛出)』라고 하여 어순이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언간은 원문의 간접이나 제약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언간은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느 자료보다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

자내 여희고 아무려 내 살 세 업소니 수이 자내흔더 가고져 흔니 날 드려 가소 자내 향희 모으물 초성 니줄 주리 업소니

(자네 여의고 아무래도 내 살 수가 없으니 빨리 자네한테 가고자 하니 날 데려 가소. 자네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줄이 없으니)

위에서 보듯이 아내가 남편한테 ‘자내’라는 호칭어를 쓰면서 애듯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조사 ‘에게’에 비해 구어적 성격이 강한 ‘한테’의 옛 형태인 ‘한더’가 이미 16세기 언간에서부터 쓰이고 있었고, ‘호여’가 ‘희’로 축약된 어형이 언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구어적 성격은 다른 언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체후 일횡 만안흐읍신지 벵 복모 간결흐읍고 …… 자서한 말심을’에는 당시 중앙어의 일반적인 어형인 ‘일향(一向)’, ‘병(竝)’, ‘말슴’ 등과 비교할 때, 고유어는 물론 한자어에도 방언형이 등장한다.

이 밖에 언간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의 효율성과 관련된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는 ‘ ’(재점)을 이용한 표기이다. ① ‘총’ 그만 굿치압’, ‘더옥’ 근심코 인노라’, ‘너희나 가 보고자’ 브라느니’, ‘부더’ 잘 지너여라’, ‘황송’ 흐오이다’에서 재점은 각각 ‘총’, ‘더옥’, ‘보고자’, ‘부더’, ‘황송’을 반복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략 표기이다. 오늘날 ‘바빠’의 의미에 해당하는 ‘밧비’를 ‘밧’으로, ‘잠깐’으로 써야 할 것을 ‘잠’으로 쓰기도 한다. 또한 언간의 끝을 ‘이만 격습’으로 하거나 ‘여의치 못 흐읍’을 ‘여의치 못’으로 쓰기도 한다.

* 언해: 한문을 한글로 풀어 쓴 글.

40. ‘언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언해보다 원문의 간접과 제약이 컸다.
- ② 언해에 비해 우리말 어법에 부합했다.
- ③ 주로 공적인 목적으로 쓰였다.
- ④ 대화 상황을 전제하지 않았다.
- ⑤ 남성들이 주로 창작하였다.

41. <보기>는 오늘날 편지의 일부이다. 위 글과 ①~⑥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자네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기 그지없었네. 십 년 전을 떠올리며 자네 ⑥한테 걸었던 기대를 다시 생각해 보았네. 앞으로도 목표를 ⑦향해 정진할 것을 믿네. 부모님께도 안부 ④말씀을 전해 드리게.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이만 ⑤적겠네.

2008년 ○월 ○일 홍길동

- ① ①는 오늘날 높임의 의미가 약화되었고 사용 범위도 제한적이다.
- ② ⑥는 오늘날에도 구어적인 말투에 더 잘 쓰이는 경향이 있다.
- ③ ⑦와 같이 축약된 형태의 말이 일찍이 언간에서도 확인된다.
- ④ ④는 언간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말심’으로 쓰였을 것이다.
- ⑤ ⑤는 언간에서 종결형 어미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42. ⑦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간에 사용된 재점은 글자나 단어가 반복될 때 다시 쓰는 번거로움과 운필(運筆)의 노력을 덜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글쓴이의 주관적 감정을 강조하는 효과를 낼기도 하였다.

- ① 총” 그만 굿치압
- ② 더옥” 근심코 인노라
- ③ 너희나 가 보고자” 브라느니
- ④ 부더” 잘 지너여라
- ⑤ 황송” 흐오이다

◆ 06년 11월 고2 33~37번

[33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국어는 보통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이른다. 근대 국어의 자료 중에는 중세 국어와 마찬가지로 언해(諺解)가 많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즉 중세 국어에 많았던 불경 언해 대신 경서 언해가 많아진다. 기존 언해본의 중간본들이 많아지고 의사(醫書) 등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다. 17·18세기 자료에서 역학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실과 19세기 자료에서 소설 내지 가사(歌辭) 등의 문학 작품이 많아지는 것도 근대 국어 자료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17세기의 근대 국어에는 중세 국어에 있었던 유성 마찰음(ingga)이 나타나지 않으며 어두 자음군이 된 소리로 변하는 경향을 보였고, 모음 /·/의 소실은 2음절 이하에서 그 소멸이 시작되어 어두 음절로 확대된다. 중세 국어에 있었던 성조(聲調)가 없어졌고, 17세기와 18세기의 교체기에 /ㄷ·ㅌ/의 구개음화가 일어나 /ㅈ·ㅊ/으로 된 사실과 18세기 중엽에 어두 음절의 /·/ 마저 /ㅏ/로 변화했고, 그 뒤를 이어 이중 모음 /ㅐ/와 /ㅔ/의 단모음화(單母音化)가 일어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근대 국어의 문법 체계를 중세 국어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간소화, 즉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체계에의 지향을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선어말 어미 ‘-오/우-’가 없어졌으며, 경어법도 중세 국어의 존경법·겸양법·공손법의 체계에서 존경법과 공손법의 체계로 바뀌었다. 중세 국어에 잡다했던 강세(強勢)의 첨사들이 많이 소멸되어 ‘야·곳’ 등만이 남게 되었다.

[A] 한편 어휘 부문에서는 한자어가 확대되어 고유어(固有語)들이 소멸되기도 한다. 그 대신 한자는 더욱 증가했는데, 당시의 한자어에는 현대 국어의 그것과 의미가 다른 것도 적지 않았다. 또한 서양의 문물이 중국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도 새로운 한자어를 추가시켰는데, 대개 천문·지리·종교 등에 관한 어휘들이었다. 그리고 정치적·문화적 교류에 의한 차용어(借用語)가 중국어·몽고어·만주어에 걸쳐 많이 유입된 것도 근대 국어 어휘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근대 국어 시기는 근본적으로 인지의 발달과 계급 사회의 동요로 어휘량이 늘어나 ‘고유어-한자어-외래어’ 부문에서 모두 양적 확장을 보여 준다. 고유어에서는 논리, 개념이 부문이 한자어에 의해 점령당한 것을 ① 빼면 형용사, 부사와 같은 감정어류에서의 다양한 생성과 소멸을 현전하는 소설, 판소리, 시조, 가사, 잡가 등의 문학 작품류에서 보여 준다.(어미미치다, 햄가림, 구브라비기락, 일락배락, 허위허위, 설파설파, 팽당그르르 등) 아울러 더욱 난해한 한자어류가 도입되었다. 물론 근대 시기에는 고유어의 한자에 의한 대치 현상 역시 심화되었으나 중세의 ‘번역박통사’(1517이전)의 언해문에 나온 고유어가 근대에 나온 ‘박통사언해’(1677)에서 한자어로 바뀐 예가 이를 잘 보여 준다.(아습→권당 : 나전히→前年 : 흥정→貨物 등)

외래어 부문도 ‘고유어-한자어-소수 외래어’로 안정되어 오던 체계가 근대 문물의 수입과 함께 중국의 백화계* 차용어들을 점증 수용하면서 외래어 차용이 증대하였다. 물론 이 시기에도 만주계(널쿠, 소부리), 일본어계(고구마, 담배) 외래어도 조금씩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미미한 정도이며 문화의 주된 공급처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부문에서 외래어의 안정적 공급원은 생활 문물어를 중심으로 한 중국어였다.

*백화계 : 중국 청나라 때에, 중국 관청에서 쓰던 표준말로 현재 중국에서 쓰는 구어 체 언어 계열을 말한다.

33.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국어의 표현력을 높이는 데에는 외래어도 도움이 된다.
- ② 어휘들을 통해서 문화 교류의 양상을 추리해 볼 수 있다.
- ③ 생활 양식이나 의식이 바뀌면 어휘의 특질이 변할 수 있다.
- ④ 문법 체계가 바뀌면서 경어법이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⑤ 근대 국어는 중세 국어에 비해 문법 체계의 간소화를 지향하였다.

34. [A]의 내용을 뒷받침할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자명종(自鳴鐘)’, ‘천리경(千里鏡)’이 북경으로부터 들어왔다.
- ② ‘뫼’가 ‘산(山)’으로, ‘끄름’이 ‘강(江)’이라는 한자어로 대치되었다.
- ③ ‘방송(放送)’은 석방(釋放)을 ‘발명(發明)’은 변명(辨明)을 의미 했다.
- ④ ‘망건(網巾)’, ‘무명 [木棉]’과 같은 중국어 차용어가 많이 유입 되었다.
- ⑤ ‘중승(衆生)’은 ‘유정물’ 전체의 의미에서 인간을 제외한 ‘집승’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35.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한자어의 확장’이 지속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우리말과 중국어의 근원이 같기 때문에
- ② 국가 간의 문법 체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 ③ 주로 중국을 통해 문화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 ④ 한자 차용 표기가 의미 전달에 효율적이라서
- ⑤ 한자어가 다양한 감정어류의 생성에 유리해서

36. 위 글과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 언어의 어떤 소리가 다른 언어의 어느 소리와 체계적으로 대응이 될 때, 그 두 언어는 동조어(同祖語)일 가능성이 높다. 영어와 독일어는 서로 갈라진지 오래되지 않은 사이인데, 영어의 /t/ 소리가 독일어에서는 모두 /z/ 소리로 대응된다. 한국어의 ‘봄’이 만주어에서는 ‘꼰’으로 대응되는 것도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① 언어의 체계에 따라 사고 방식이 달라진다.
- ② 언어에서 음성과 의미의 결합은 임의적이다.
- ③ 각 사회의 계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 ④ 연속적인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표현한다.
- ⑤ 언어 기호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체계를 지닌다.

37. ⑦ 의 ‘빼다’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그는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종일 토록 책만 보았다.
- ② 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을 빼고 앓아 있었다.
- ③ 누가 방에 냄새를 빼려고 창문을 모두 열었다.
- ④ 그는 목청을 길게 빼면서 구성진 노래를 했다.
- ⑤ 나는 필요할 때마다 통장에서 돈을 빼 쓴다.

◆ 07-9평 20~23번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힌샘 주시경은 국어학자이면서 국어 교육자이다. 그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국어 연구를 통해 국어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시켰을 뿐 아니라 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맞춤법의 통일 같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국어학자로서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운 선구적인 인물이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국어학 연구에서, 그는 ⑦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 형태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문법 현상을 분석하고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순수 고유어를 사용하여 학술 용어를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모호하거나 엄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연구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이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특히 ‘늦씨’와 ‘속뜻’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단어를 뜻하는 ‘씨’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면서 여기에 ‘늦씨’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컨대 ‘해바라기’를 ‘해^바라^기’, ‘이더라’를 ‘이^더라’처럼 늦씨 단위로 분석했다. 이는 그가 오늘날 ‘형태소’라 부르는 것과 유사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1930년대에 언어학자 블룸필드가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훨씬 이전이었다. 또한 그는 숨어 있는 구조인 ‘속뜻’을 통해 곁으로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을 분석했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장의 계층적 구조는 그림을 그려 풀이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방법은 현대 언어학의 분석적인 연구 방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주시경은 국어학사에서 길이 기억될 연구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국어 교육자로서도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언어를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표로 보았으며,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말과 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국어 교육에 온 힘을 다하였다. 여러 학교에서 우리말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국어 강습소를 만들어 장차 교사가 될 사람들에게 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그의 국어학 연구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면, 주시경은 ‘한글’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우리 말과 글을 바르게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그는 맞춤법을 확립하는 정책에도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 모임을 만들어 맞춤법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갔다. 그리고 1907년에 설치된 ‘국문 연구소’의 위원으로 국어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 ‘한글 맞춤법’도 일찍이 주시경이 취했던 형태주의적 입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 크다.

20. 중심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서술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중심 화제의 위상을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의 의의를 권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21. 주시경의 국어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고유어를 활용하여 학술 용어를 창안했다.
- ② 문장의 계층적 구조를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
- ③ 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장의 구조를 밝히려 했다.
- ④ 단어보다 더 작은 문법 단위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 ⑤ 단어의 의미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히려 했다.

22. 위 글에 근거하여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시경이 국어 문법을 가르친 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국어 교육을 확산시키려는 이유도 있었겠구나.
- ② 주시경이 국어 연구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까닭은 서구 언어학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겠구나.
- ③ 주시경이 국어 보급에 앞장선 까닭은 국어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구나.
- ④ 주시경의 연구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까닭은 당시에 과학적 국어 연구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겠구나.
- ⑤ 주시경이 선구적인 인물인 까닭은 그가 독자적으로 문법 체계를 세웠을 뿐 아니라 그의 연구가 후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겠구나.

23.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⑦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집이’, ‘집을’처럼 적는다.
- ② 불규칙 용언 ‘돕다’의 경우 ‘도와’, ‘도우니’처럼 적는다.
- ③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경우 ‘소나무’, ‘바느질’처럼 적는다.
- ④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짤막하다’, ‘널따랗다’처럼 적는다.
- ⑤ ‘-이’나 ‘-음’ 이외의 접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뀐 경우 ‘마개’, ‘마감’처럼 적는다.